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이인아 (울산 월평중학교 교사)



폴 마샬 저 | 김재영 역 | IVP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사람들은 이 수많은 이야기들에 울고, 웃고, 슬며시 짓궂은 발상을 떠올리며 미소 짓기도 한다. 이야기 중에서도 특히 긴 시간을 요구하는 책 속 이야기는 우리를 깊고 넓은 생각의 바다로, 또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작가의 세계, 진정한 고민 속 별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경향이 있다.

〈천국만이 내 집이 아닙니다〉의 저자 폴 마샬! 그의 이야기는 우선 재미있다. 지질학자로서 우리가 가보지 못한 지구 끝자락 구석구석을 탐사한 짧은 이야기가 일상과 만나고 있다. 적재적소에 소개되는 자연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풍경과 생물, 사물, 인물의 묘사가 특별하고도 탁월하다. 마을 주민들이나 동료들과의 에피소드도 흥미진진하고 책 머리에서부터 끝까지 그만의 세계관에 녹아든 행복이 배어 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에 가까이 동행하다 보면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들의 천연 미소가 어우러져 어느새 우주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세계만큼 무궁무진한 청지기직-일-노동 그리고 쉬에 대하여, 다시 땅으로, 일상의 삶으로, 그는 우리를 인간의 책임과 자유의 길로 초대한다. 세상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은 끊임없이 생겨난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청지기직과 정의의 길이라고 보여주신 것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담 스스로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허락하셨듯이,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또 책임 있는 존재로 진정한 결정을 내려야할 진짜 책임을 부여 받았다고 본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유인이 실천하는 책임 있는 행위가 작업 환경, 조직적인 구조에 의해 타락했음을 지적하면서 인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유를 손상시키는 제도들을 향한 올바른 정치에 대한 논의도 빼놓지 않는다. 내친김에 저자의 다른 저서인 〈정의로운 정치〉를 읽어보니 우리 앞에 나타나는 수많은 이슈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틀이 탄탄하다. 무한한 다양성과 상황 윤리만



이 존재하는 듯한 요즘 세태에서 저자의 이 두 책을 모두 읽어보기를 권장한다.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의 가장 큰 장점은 그가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도 이해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지녀야 할 영적인 방향성(하나님의 세계의 선함과 영구성)을 개관하며 마음을 울린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무수한 별빛을 보며 약속을 상기했듯이, 이 땅에서 내 집안 골방의 어두운 마음속에 이제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작은 촛불 하나 켜는 힘을 생성하여, 다시 깊고도 넓은 평화와 든든한 정치적 다스림이 빚어내는 안정감으로 하나님의 세계, 그분과의 약속과 조우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의 세계를 선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연합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다. 저자는 ‘복음명령’ 못지않게 ‘문화명령’에 대해 통찰력 있는 실제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책을 통하여 청지기와 제자로서의 통합된 만남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시간, 에너지, 건강, 조직체, 가정생활, 노동양식, 건축, 정치, 환경 등에서 신실함과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는 책임을 배우자. 이제나 저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정한 신비 속에서...우리들의 천연 미소와 함께!

이인아

울산 월명중학교 교사로 현재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독교문화전공(M.Ed) 석사과정 중에 있다.